

성체강복

성체신심을 표현하는 성체강복은 여러 본당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성체공경 예식의 마지막에 거행된다. 우리들은 이 예식 중에 성가, 기도, 묵상들을 바치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 성체강복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성가들이 사용된다.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

O Salutaris (O Saving Victim)

*O salutaris hostia, Quae caeli pandis ostium:
Bella premunt hostilia, Da robur fer auxilium.*

*Unitrinoque Domino Sit sempiterna gloria:
Qui vitam sine termino Nobis donet in patria.*

O Saving Victim

O Saving Victim, op'ning wide
The gate of heav'n to us below!
Our foes press on from ev'ry side:
Your aid supply, your strength bestow.

To your great name be endless praise,
Immortal God-head, one in Three;
O grant us endless length of days
When our true native land we see.

Tantum Ergo (Come Adore)

*Tantum ergo Sacramentum
Veneremur cernui:
Et antiquum documentum
Novo cedat ritui:
Praestet fides supplementum
Sensuum defectui.*

*Genitori, Genitoque
Laus et jubilatio,
Salus, honor, virtus quoque
Sit et benedictio:
Procedenti ab utroque
Compar sit laudatio. Amen.*

Come Adore

지존하신 성체 앞에
끓어 경배 드리세
묵은 계약 완성하는
새 계약을 이루었네.

영원하신 성부 성자
위로자이신 성령께
구원받은 환희로써
영광 찬미 드리세
무한하신 권능 권세
영원 무궁하여라.

LITANY (하느님 찬미가)

우리들은 이 청원가를 바치면서 당신 아들의 삶과 삼위일체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 이 하느님 찬미가는 단독으로 혹은 성체강복 중의 한 부분으로 바쳐질 수 있다.

하느님 찬미가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를 받으소서.
예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를 받으소서.
예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를 받으소서.
제대 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를 받으소서.
위로자이신 빠라끌리또 성령은 찬미를 받으소서.
마리아를 원죄의 물뿤에서 보호하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높으신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동정이시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한 배필이신 성 요셉을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와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소서.

성체 앞에서 주님과의 기도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6: 35)



가톨릭 교회에서는 감실에 계신 성체를 현시함으로써 우리들이 주님과 친교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시어 단식하고 기도하셨다. 악마의 유혹을 받았지만 기도와 하느님 말씀의 도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항상 곁에 계심을 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며 성체안에서는 더욱 그러하시다. 그분의 성심은 당신을 일상생활의 여러 임무들과, 소음 그리고 혼란으로부터 불러내신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야고보4:8)

당신은 성령의 인도로 이 성당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당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준비하며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성체 현시 중에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내 말을 들어야 마음 편히 살고 번을 당할 걱정 없이 편히 살리라.” (잠언1:33)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제 마음을 아시는 당신께서는 저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저를 당신 곁에 더욱 가까이 부르시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인 교회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사랑의 거룩한 성사인 이 성체 안에 당신께서 참으로 현존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제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대화의 기도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를 가까운 친구 사이에 긴밀한 나눔으로 묘사하였다.

우리들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청할 때, 혹은 용서를 구할 때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

다윗왕이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하느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 입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청하였듯이 이런 것들이 모두 기도와 간구의 형태들이다..

다음의 단계들은 주님과 대화하는 한 방법이다.

침묵에 잠기십시오

성체 앞에 있는 동안 침묵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대화는 이 기도시간을 마친 후, 교회 밖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마음의 혼란함은 기도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잠시 마음을 정결히 하십시오. 혼란한 생각들이 사라지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은총들에 감사하십시오; 생명, 건강, 일, 가족과 친구들.

주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의심과 교만은 하느님과 우정을 나누는데 역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 베푸신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선 그리고 평화를 주고 싶어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당신 삶 안에 들어오시도록 할 때 그분께서 못하실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변화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청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청하십시오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용서를 청하십시오. 오랫동안 고해성사를 못하였거나 중대한 죄를 지었을 때, 용기를 내어 오늘 밤 혹은 교회에서 정한 시간을 선택하여 성사를 받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성서로 기도하기

나눔의 또 다른 형태는 성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귀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묵상한 후, 당신의 생각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나누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6:53-55).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6:27,35).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 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6:67-68).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마태오26:27).



주님 제 기도와 지향을 당신에게 맡기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릴 때까지, 사랑과 온유함으로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리라 믿나이다. 아멘.